

어린이 책꽂이

▲일주일은 엄마네 일주일은 아빠네=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집과 아빠집을 일주일씩 오가며 살게 된 소녀 앤디의 이야기.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채 엄마 아빠와 살던 지난 날을 그리워 하는 앤디의 모습은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한다. (시공주니어·7천원)

▲쟁아=죽음을 맞은 잠자리와 졸지어 잠자리 근처로 모여드는 개미의 생명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계절이 순환하듯 생명들도 순환하여 죽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참비·9천800원)

▲알리의 한국사 대탐험=교과서 따라잡는 알리의 한국사 대탐험 시리즈. 한국사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돼 있다. (철인북스·8천500원)

▲함정에 빠진 수학=수학이 왜 생겼으며, 사람들은 왜 수학에 열광하고 또 수학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한 수학과 수학의 역사와 철학을 다룬 책이다. (주니어김영사·1만1천원)

▲세 친구=결국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천재 관계가 가까워져와 연어, 그리고 바람이 친구가 되고 파도가 우정을 나누는 과정이 감동적이다. 먹고 먹히는 관계에 놓인 세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죽을 때까지 깊은 우정을 나눈다. (현암사·7천500원)

세월의 흔적 간직한 유럽 '책마을'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 정진국 지음

아름다운 자연,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어우러진 시골 마을에 서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풍경. 많은 사람들이 '책마을'을 꿈꾸게 된 데는 지난 2003년 발간된 '현책방 마을 레이아웃'이(씨앗을 뿌리는 사람들)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962년 영국 웨일스의 헤이본 와이클 '현책방 마을'으로 명명하고 당당히 왕이 된 리처드 부스가 주도한 '책마을'은 전세계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1980년대부터 유럽 시골의 책마을을 찾았던 미술평론가이자 번역가 정진국씨가 최근 2년간의 여행 기록을 묶어 펴낸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는 10개국 24곳 책마을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다. 정씨의 책은 요즘 쏟아져 나오는 여행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여행의 소재가 '책'인 덕도

있지만 그의 책은 단순히 책마을을 소개하고, 마을 풍광의 감상적 소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 1990년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책마을은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이뤄진 공간들로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1년 책마을로 탈바꿈한 스위스 발레의 생피에르 드 클라주는 교구 성당의 풍타나즈 신부 주도로 탄생된 곳이다. 마을 탄생 70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공리를 하던 주민들은 신부의 의견을 좇아 '책마을'을 구상하게 됐다. 현재 '참견꾼' 등 상설 서점이 13곳이고, 마을 특산물인 햇포도주와 음악이 어우러진 여름 책축제는 유럽의 명물이 됐다.



평범한 주부가 탄생시킨 스웨덴 쇠데르만란드의 벨피사는 간이역과 오래된 창고가 책방으로 변신, 책마을로 새롭게 탄생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요새였던 독일 브란덴부르크의 빈스도르프는 내무반의 막사를 서점으로 꾸렸다. 그밖에 레만 호수 대로 변 목 좋은 곳에 야외 서점들이 진을 치는 스위스 제네바의 플랑팔레, 사람 키를 넘는 대형 '어린이왕자' 책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프랑스 부르그뉴의 쿠티라, 벨브란트와 베르메르의 흔적이 남아 있는 네덜란드 헬데라란트의 브레더보르트, 저자가 세상에서 가장 운치 있는 책방 거리로 꼽은 노르웨이 쇠를라네의 트베어스트란트 등 책 속에 등장하는 책마을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독자들을 유혹한다.



20여개의 책방이 모여 있는 프랑스 오드 몽블리외에 자리잡은 수백년 된 돌집을 개조한 서점.

저자가 조선 여성의 모습을 담은 스위스 사진작가 엘라 마야르의 사진집과 프랑스어권 북반서적인 '조선의 문화유물'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책들을 발견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조관본 등 희귀서적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를 돋운다. 유럽 속 책마을은 예전처럼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시골마을들이다. 어떤 곳은 기차나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건 고만고만한 지역 특산물을 앞세워 '똑같은' 축제를 열어대는 우리 농촌의 풍경이다. 저자는 책마을이 '도서 문화, 혹은 독서 문화가 다양해 지는 커다란 실험장'이라고 했다. 그 실험을 하겠다고 나서는 우리네 시골 마을은 없을까. (생각의 나무·1만3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티베트 문제

...티베트 이야기 토머스 레더드 지음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을 둘러싸고 벌어진 폭력 사태는 더 이상 티베트 문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줬다. 티베트는 과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에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 걸까. 티베트 역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달라이 라마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30년간 미국과 네팔을 오가며 기자로 활약한 토머스 레더드가 쓴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는 저자가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의 역사와 문화, 세계관과 영성에 관해 3년간 토크를 듣고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를 통해 티베트의 건국 신화부터 파란만장했던 티베트 문명의 흥망성쇠, 티베트를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 등을 자세히 들려준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내가 바라본 체 게바라의 인간미

체 Che, 회상 알레이다마치 지음

"안녕, 하나뿐인 내 사랑, 배고픈 이리 때 앞에서 내가 없는 초원의 추위에서도 떨지 마오, 내 심장 옆에 당신을 데려가니까요." 혁명의 상징인 체 게바라. 오는 6월 그의 탄생 80주년을 앞두고 체 게바라의 두번째 부인 알레이다마치가 회고록 '체 Che, 회상'을 출간했다. 남편의 사후 40여 년 만에 입을 연 마치는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 편지, 엽서 등을 통해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음을 택하겠다'던 체 게바라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랑하는 여자의 눈으로 바라 본 체 게바라는 가정을 걱정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노인으로 변장해 물레 아이들을 만나는 등 기존의 책들에서 볼 수 없었던 일화들을 통해 인간적인 체 게바라를 느낄 수 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이은봉의 '책바위'

늦잠을 잔 탓으로 일어나 통통 부은 눈을 부비며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의 오른쪽은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자주 찾는 식당으로 이른 점심을 먹는 학생들이 빈 방석을 하나씩 채워가는 중이다.

나는 밥맛이 생기지 않아 식당을 지나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목련 나무 아래에서 담배를 피운다. 내가 아는 한 이 골목에서 유일하게 꽃을 피우는 목련이 지친 내 어깨에 그늘을 드리워준다. 골목에는 어젯밤 취객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토사물과 소변의 지린 냄새 쓰러짐이 골목의 풍경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뒷골목은 왜 이렇게 쓸쓸하게 보이는가.

지난 1984년 창작과비평사를 통해 '마침내 시인이자'로 등단한 이은봉 시인의 시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삶의 풍경들이 거목처럼 고고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뿌리 뽑힌 자'로 명명되는 80년대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던 그의 첫 시집이 지금에 와서도 변치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인간의 내면 풍경과 현실 대비

다. 그의 시의 초점은 '인간의 삶'에 맞춰져 있으며 6권의 시집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선은 다른 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 그의 바라보는 대상은 늘 인간이거나 인간의 삶의 동력원인 한 축인 '육량'에 머물러 있다. 지난 80년 이후 이 땅의 진보세력이 이론 업적과 성과를 놀라운 것이었으나 과연 우리의 삶의 질은 얼마나 높아졌나 하는 회의가 든다. 인간의 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진보세력이 주도했던 정국 하에서 우리 삶의 풍경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다. 그 옛날 공자가 그토록 원했던 부부자자(父子父子·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를 뜻함)의 세상이나 삼국시대 민중들이 열었던 율화(容華·예쁘게 생긴 얼굴)의 세상이나 우리의 소원은 늘 한결같았으나 역사의 발전을 보면 인간을 위한 진보의 속력이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

시를 통해 '인간'과 '육량'에 대한 발언을 시작한 시인의 몸은 6번째 시집 '책바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다. 아마도 천축국을 찾아 나선 헤초처럼 인간의 마을에 대한 탐색은 포기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시집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간의 존재의 양가적 측면에 있다.

특히 인간의 육량을 자극하여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천박한 자본과 이를 반성하고 때로는 이런 삶에서 매몰되어가는 시인의 한 몸속 두 자아가 벌이는 투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혹에 약한 자신이 이 약한 육체에 주권으로 이 야만의 세기를 무사히 건너 마침내 꿈꾸는 피안의 땅으로 무사히 건너갈 수는 있을까하는 우려도 가감 없이 내보이고 있다.

목련나무 아래서 담배를 피우고 고사 나서는 한참을 그늘을 드리운 목련에 대해 그리고 저 버린 목련꽃에 대해 내년에 다시 만날 그 무엇에 대해 생각을 거듭하다가 빈속을 채워줄 식당을 찾아 나선다.



이은봉(시인)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tel, bathhouse,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Real Estate Broker) featuring '★급매매★' (Urgent sale) and '첨단중심 상업매매' (Advanced center commercial real estat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featuring '▶토지매매' (Land sale) and '▶건물매매' (Building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 (Court Auction Specialist) featuring '지지경매컨설팅(주)' (Jiji Real Estate Consulting Co., Ltd.) and '법원 경매입찰장' (Court Auction Not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featuring '법원경매입찰장 양' (Court Auction Notice) and '▶주택' (Residential) listings.